

광주 주택경기 침체 심각

“부동산 규제 제발 풀어라”

정부, 지방건설경기 부양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등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률 적체 심화 및 공사수주량 급감 등 주택시장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가운데 수도권과 광산구가 수도권과 유사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지방 주택경기 침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미분양률 적체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부분 쪽에서 털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공

사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 등은 정부의 추가 조치시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의 투기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회원사들의 공사계약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6.3%나 감소하는 등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더이상 경영을 하기 힘든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의 경우 지난 7월 말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9천202세대에 이르는 데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체가 75곳에 달할 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소재 업체(100개)의 절반 이상이 54개사는 을 들어 6개월간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물론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권의 지원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혁서 감독정책1국장도 이날 지방의 주택경기 부진과 관련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택대출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지역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직원들이 18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정보센터 광장 앞에서 전남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지역본부에서는 20일까지 '고향사랑 추석맞이 직거래 큰 장터'를 열어 농·특산물들 10~25%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 補選 내달 실시

박흥석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이달 말에서 10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시의 부회장단인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 김성산 금호산업 대표, 김홍균 남선산업 대표, 문덕형 삼일 부회장 등 4명은 17일 광주시에서 마형렬 회장 공백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를 갖고 박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보선시기를 10월말로 연기하기로 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보선 원안제공사 제출 규제조항 삽입여부 및 선거일정 등을 오는 10월1일 상인의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회장단은 상공인의 화합을 위

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차기 회장을 선거보다는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거쳐 개정된 새로운 정관이 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광주시의는 21일 제도개선 소위원회회를 열어 정관을 새롭게 정비, 광주시의 재승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연임제한 규정에 관한 부칙규정이 모법인 상의법과 달리 광주시가 승인을 거부했다"면서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칙 조항을 개정, 광주시의 승인이 내년 2월부터 14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태기자 jitlee@kwangju.co.kr

휴대전화 요금인하 막판 진통

정부-업계 가입비·기본료 싸고 이견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고 기가폰 요금을 도입하는 요금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완하기로 결론내렸다.

정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가 운데 맞가지 보완, 수정할 게 있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표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추석 연휴 이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망내 할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가입비, 기본료 인하 등 업체의 수익과 직접 관련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4일

정세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언급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을 일부 합리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큰 그림'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동통신 3사가 시설 투자를 모두 마쳤는데도 가입비와 기본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등 매출의 근간을 이루는 요금을 내리는 것은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3사가 그 부분에서는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시장 쏠림이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찬성하고 있어 할인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민간업체 미분양 주택 정부가 인수”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관심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8일 지방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차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후속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관련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2차 조치'의 핵심은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비롯,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나 재정부 소관인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지방 건설업체

의 부도와 관련해 이들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업체들의 미분양을 공공부문이 털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미분양 물량의 일부를 떠안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시사한 것으로, 그동안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 미분양 주택 매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등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투기 억제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광주시 광산구 등 전국 9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 69곳을 제외하고 2차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광주 1곳, 대전 4곳, 충청 7곳 등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최근 건교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광주시 남구의 추가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1차관은 지난달 말 정세브리핑에서 "지방 건설경기 어려워 있음에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현장 파견을 통해 상황 파악을 했으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r

“추석연휴 연체 주의하세요”

27일 금융거래 몰릴 듯 통장 잔고 미리 확인을

추석연휴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어지면서 27일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계좌에 미리 자금을 충분히 입금해놓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통신회사·대출이자·펀드·적금·보험료 등의 결제가 집중되면서 뜻하지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주요 급여이체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몰리면서 27일에 월말 금융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

된다.

한 달 중 직장인들의 급여이체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날은 25일과 21일로 각종 공과금 이체 및 결제일은 22일과 26일에 몰려있다.

22일과 26일은 이번 추석 연휴에 포함돼 있어 신용카드·통신료·각종 공과금·대출이자 및 펀드·적금·보험료 등의 결제가 27일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또 월말이 27일과 28일 이틀로 한정돼 기업의 월말 결제성 자금 수요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카드사의 경우 20일 이후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을 선택한 회원이 56%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을 5.85% (확정금리)
업조타운 1층 (업원 안)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5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과학논술지도사 양성과정 (광주, 순천) 교육생 모집

- 교육생 모집**
 - 1. 교육생 모집: 2007.09.20(목)부터 10월 15일까지
 - 2. 교육생 선발: 10월 16일(월)부터 10월 22일까지
 - 3. 교육생 교육: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 4. 교육생 평가: 11월 19일(목)
- 교육생 모집 대상**
 - 1. 교육생 모집 대상: 2007.09.20(목)부터 10월 15일까지
 - 2. 교육생 선발 대상: 10월 16일(월)부터 10월 22일까지
 - 3. 교육생 교육 대상: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 4. 교육생 평가 대상: 11월 19일(목)
- 교육생 모집 신청처**
 - 1. 교육생 모집 신청처: 2007.09.20(목)부터 10월 15일까지
 - 2. 교육생 선발 신청처: 10월 16일(월)부터 10월 22일까지
 - 3. 교육생 교육 신청처: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 4. 교육생 평가 신청처: 11월 19일(목)

문의: 062)385-0723~4

S the 1 요리학원

★ 제2기 카빙(Carving) 개입조각장식·스시(초합) 수강생모집 ★

맛과 맛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 = 당신을 초대합니다

- 1. 카빙: 10월 15일(월)부터 11월 18일까지
- 2. 스시: 10월 16일(월)부터 11월 19일까지
- 3. 초합: 10월 17일(화)부터 11월 20일까지
- 4. 개입조각장식: 10월 18일(수)부터 11월 21일까지

문의: 062)385-0723~4